

37년 전 목숨 구해준 소방관 찾은 간호사

코로나19 최전선인 뉴욕 병원으로 자원한 간호사 디어드레 테일러(40)는 얼마 전까지 37년 전 자신을 화재 사고에서 구해준 한 소방관을 찾기 위해 애썼다. 다시 만나면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간호사의 소원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디어드레 테일러는 현재 뉴욕 브루클린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2개월 넘게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힘쓰고 있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서 남편, 두 아이와 행복하게 지내던 그녀가 뉴욕 지원에 나선 이유는 사실 자신이 4살 때 겪은 일과 관계가 있다. 1983년 12월 당시 뉴욕 맨해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살았던 디어드레는 집에서 화재가 일어나 연기 때문에 의식을 잃고 말았다. 그때 디어드레를 구해줬던 이가 바로 유진 푸글리스 주니어라는 소방관이다.

디어드레는 성장하면서 당시 자신을 구해준 소방관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온라인으로도 소방관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찾지 못해 37년 전 화재 사고가 기록된 신문의 기사를 스크랩해두고 간직하며 생명의 은인을 생각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그의 소식을 들었다. 얼마 전 뉴욕 소방관들이 야근을 하던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왔다. 그때 그녀가 신문 스크랩을 방문한 소방관들에게 보여주며 유진의 소



▲ 디어드레(왼쪽)와 유진, 37년 전 화재 사고 기사. 사진=nydailynews.com 캡처

식을 묻자 그중 한 명이 그를 잘 안다며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

오랜 세월 찾은 생명의 은인의 소식을 접한 그녀는 그날 교대 근무가 끝나자마자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24년 전 소방관을 그만두고 현재 75세가 된 유진은 자신이 구한 4세 소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만난 적은 없지만 항상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생각했다.”면서 “나 역시 당시 신문에서 스크랩한 것을 25년째 벽에 걸어놓고 있다.” 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금은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아 감염 예방을 위해 만날 수 없지만 상황이 안정되면 반드시 만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다? 알고보니 염색한 개



▲ 중국에서 반려견을 판다처럼 염색시킨 여성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CCTV 캡처

중국에서 또 ‘판다 개’ 소동이 일었다.

1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러

산시에서 반려견을 판다처럼 염색시킨 여성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3일 러산시에서 판다를 안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목격자가 제공한 동영상에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차량 소유주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운전석에 앉아 있던 판다는 다름 아닌 소유주의 반려견으로 밝혀졌다.

차량 소유주 ‘양옌’은 반려견을 판다처럼 염색시킨 이유에 대해 본래 흰색 털을 가진 차우차우 종의 반려견 ‘메이니우’ (아름다운 소녀)가 판다를 쫓아 염색으로 귀여움을 살리려 했다고 말했다. 직접 만든 천연 염색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반려견에게 전혀 해롭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양옌의 반려견 ‘메이니우’는 몇 달 전에도 유명세를 치렀다. 당시 목줄을 차고 네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메이니우의 모습이 영락없는 판다여서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반려견 염색에 대해 지역 동물단체의 한 전문가는 “염색약이 아무리 반려견에게 해가 없다 하더라도 모든 반려동물은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받아야 한다. 존엄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적 동물권단체 ‘페타’ (PETA)도 동물 학대라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에도 한 애견카페가 개를 판다처럼 염색 시켜 물의를 빚었다. 당시 ‘판다의 고장’으로 불리는 쓰촨성 청두시의 한 애견카페 주인은 자신이 기르는 차우차우 6마리를 판다처럼 염색시켰다. 심지어 애견인들에게 1천500위안(약 230달러)에 애완견을 판다처럼 염색해주겠다고 홍보해 지탄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카페 측은 염색 서비스를 중단했다.

118쪽의 병원비 청구서

코로나19로 두 달여 간 입원 치료를 받은 남성이 112만 달러가 넘는 병원비 폭탄을 맞았다.

13일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마이클 플로(70)는 지난 3월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워싱턴주 이사와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가망이 없다는 의사 소견으로 가족과 전화로 작별 인사를 나눴을 만큼 상태는 위중했다. 그러나 여러 고비를 넘긴 끝에 플로는 입원 62일 만인 지난달 5일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의료진은 그에게 ‘기적의 아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 코로나19 원치 후 퇴원하는 플로. 그는 112만 달러가 넘는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다. 사진=seattletimes.com 캡처

달하는 책 한 권 분량의 청구서에는 중환자실 사용료와 무균실 처리 비용 등 상세 내역이 기재돼 있었다. 중환자실 사용료는 하루 9,736달러로 책정돼 있었다. 42일 치 무균실 처리 비용은 40만 9,000달러, 29일 치 인공호흡기 사용료는 8만 2,000달러에 달했다. 상태가 위중했던 이들 동안 쓴 10만 달러도 포함됐다.

다행히 플로는 ‘메디케어’ 가입자로 자비 부담은 면하게 됐다. 그는 “미국은 의료보험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라면서 “내 목숨을 구하는 데 100만 달러나 들어갔다. 납세자들이 내 병원비를 대신 부담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든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런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퇴원한 그에게 날아온 것은 112만 2,501달러에 달하는 병원비 청구서였다. 181쪽에

법률 문제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서 & 서 법률사무소

www.suhlaw.com
info@suhlaw.com

- **가정법 Family Law**
이혼, 양육권/방문권, 입양, 리빙트러스트, 혼전(후) 계약
- **이민법 Immigration Law**
가족/취업이민, 신분변경 E-2, H1B, L, O visa
- **민사/형사법 Civil/Criminal Law**
민사소송, DUI
- **상법 Business Law**
법인설립, 계약서
- **번역 업무도 가능합니다**



서자경 변호사
Ja K. Suh, Esq.

서자현 변호사
Ja H. Suh, Esq.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Certified by the State Bar of CA
Univ. of Missouri-Columbia 법대 (J.D.)
Univ. of Missouri-Columbia 비평론 석사

California Western 법대 (J.D., Dean's List)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멤버(AILA)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 협회 위원회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 이사역임
오렌지 카운티 회장단 협회 회원 역임

LAW OFFICES OF
SUH & SUH
A PROFESSIONAL CORPORATION

L.A. & O.C. (714)368-1655
161 Fashion Ln., Suite 111, Tustin, CA 92780

San Diego (858)622-6279
4660 La Jolla Village Dr. #500, San Diego 92122

Vista (760)643-4084
380 South Melrose Dr. #363, Vista, CA 92081